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년) 21:00 (찬양미사)
예비자교리			새벽 6:30 저녁 19:00 (목) 오전 10시
유아 세례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알 림

- 교구장님 영명 축일(11/30) 영적예물 봉헌 안내
 - 기도내용 : ① 미사 ② 묵주기도 ③ 주교를 위한기도 ④ 화살기도 ⑤ 희생
 - 제출기간 : 11/17(화)까지 / 성전입구 봉헌함
- 11월11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다음 주일(11/8)은 제53회 평신도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약)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와 영성강좌
 - 일 시 : 11월 2일(월) 오전 10시
 - 미사집전 : 박선우 그레고리오 신부님

◎ 청소년 분과

- 유·초등부 신앙학교
 - 일 시 : 11월 7일(토) ~ 8일(주일)
 - 장 소 : 내리 살레시오 피정센터
 - 11월 7일(토) 16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 *

- 대상자 : 수험생 자녀가 있는 보호자
- 시 간 : 11월 3일(화) ~ 12월 2일(수)
평일 19:40~20:40, 주말 17시~18시
- 장 소 : 소성전

◎ 노인 분과

- 베타니아 노인정 운영재개
 - 운영시간 13:00 ~17:00, 858-8548(회장 김요안나)
 - 자비의 기도 15:00, 식사제공은 없습니다.

◎ 2021학년도 꿀벌유치원 신입생 모집

- 대 상 : 2016.1.1. ~ 2017.12.31. 출생유아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10월30일 개통)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우선전형 접수 : 11월 2일(월) ~ 4일(수)
(가톨릭신자, 다자녀-자녀2명이상, 한부모가정)
- 일반전형 접수 : 11월18일(수) ~ 20일(금)

◎ 신안 지도성당 김장용 젓갈 주문 접수

- 새우젓 1Kg 17,000원, 액젓 5Kg 20,000원
-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오늘까지)

◎ 다음주일 (11/ 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21일 ~ 10월27일)

교 무 금	7,362,000 원
주일헌금	4,329,000 원
오라토리요 2차헌금	1,134,000 원
감사헌금	이대복20만원 이춘순10만원 조규선30만원 김명선10만원 박주형10만원 신종구 3만원 이윤식10만원 지현주 5만원 이재선10만원 익 명30만원 이종주10만원 전필만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 1	이영민	오성환 서윤석 신종구 김진수	최승일 손정주
11/ 8	구민서	조흥환 이용남 도현만 최상림	안상록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 1	박승환	김인기	손상민 이계명	이운영	최석준
11/ 8	박용환	최석준	장인홍 최승일	김광수	오광운

◎ 주보 7면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 돈보스코 오라토리요 학생 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1월 1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11월 8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1월 15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11월 22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4.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자신을 만들지 않았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아니면 모래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한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한한 사물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무언가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아무 의미 없이 반짝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스냅사진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이 계실 경우에만 그분 곁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스스로의 의미를 찾습니다. 무한한 절대자를 향한 갈망을 모든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에 관한 생각과 그분을 향한 갈망은 인간 본연의 것입니다.

5. 하느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하느님은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6. 하느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은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한가요?

하느님은 세상을 그 자체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세상에는 파괴적인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결정도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양산합니다. 그릇된 결정은 때때로 악과 죄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때 개인은 온전히 악과 불의한 체계 안에서 행동하게 되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인으로 불의한 전쟁에 가담해야만 할 때가 그렇습니다.